



한국후지제록스, 서울공고 ‘디지털 인쇄 실습실’ 개설 지원 실습 위한 디지털 인쇄기 제공해 산학협력 모범사례 실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우에노 야스아키, www.fujixeror.co.kr)는 지난 6월 10일 자사의 산학협력 파트너인 서울공업고등학교(교장 이상범)의 디지털 인쇄 실습실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쇄기를 제공키로 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인쇄 실습실 개설 및 활용 교육’ 기념 행사에는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대표이사 전무, 이상범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장과 학생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실습실 개설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가지고 디지털 인쇄기가 설치된 실습실을 둘러보며, 디지털 인쇄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함께 도모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지난해 12월, 서울공고와 함께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졸업생 진로상담 및 취업 기회 제공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과 함께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디지털 인쇄 관련 실습 교재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컬러 디지털 인쇄 프린팅 시스템 ‘도큐컬러(DocuColor)’를 기증, ‘디지털 인쇄 실습실’ 개설을 지원하게 됐다.

‘도큐컬러(DocuColor)’는 2400×2400dpi 해상도의 고품질 이미지를 생생하게 구현하

는 제품으로, 분당 출력 속도 50매에 달하는 고성능 제품이다. 특히, 코팅 용지나 고중량 용지에서도 일관된 출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인쇄 사이즈는 320×488mm이며, 작업 중 토너 교체가 가능해 블랙 토너 카트리지를 2개를 장착하면 장시간 출력이 가능하다.

서울공업고등학교 이상범 교장은 한국후지제록스 황인태 대표이사 전무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모범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첨단 기자재와 우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교장은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디지털 인쇄 실습실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인쇄의 원리와 구조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그래픽과 디자인 실력을 갖추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대표이사 전무는 “디지털 인쇄 실

습실 개설이 인쇄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과 학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한국후지제록스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99년 설립돼 115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공업고등학교는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특성화 고등학교다. 1955년 인쇄과를 신설한 이후 2005년 그래픽아트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지금까지 3천여명의 인쇄 전공 졸업생을 배출해왔다.



서울공업고등학교 이상범 교장(오른쪽)은 한국후지제록스 황인태 대표이사 전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